



겨울철 사양관리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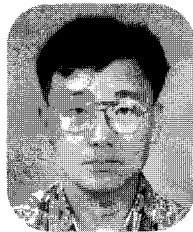
양돈장에서 골치아픈 질병이 상재화 되고 생산성이 예전 같지 않은 현상이 많아졌다. 특히 호흡기 질병은 더욱 문제를 야기시키며 백신이며 항생제를 강화하여 투여해도 좀처럼 질병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겨울철의 추운 날씨에는 이런 증세가 두드러지게 되고 생산 성적이 저하되는 현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보온을 하기 위해 이중, 삼중으로 비닐을 둘러보면 환기가 되지 않아 Gas 발생이 문제되어 기침소리가 늘어나게 되고, 소화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PED문제로 어린 포유자돈 폐사율이 높아진다.

본론

1. 분만사 관리

겨울철 사양관리에서 분만사는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하며 일교차와 섯바람 유입에 따른 포유자돈 설사 문제는 점검을 해야 한다.



조 상 욱 원장
중앙동물병원

• 분만후 모돈에 항생제와 소염제를 함께 투여한다. 만일 유방 뒷부분과 음부에 부종이 발생했다면 분만 4일전에 항생제 처치를 해야 분만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초유 섭취를 자돈이 할 수 있다.

• 분만 7일전 사료량을 서서히 줄여주고 분만 당일 절식과 함께 음수는 충분히 섭취하게 해야 하며 분만후 5일이 지나서 사료량을 증량시켜 분만 10일째는 최대의 사료를 섭취하게 해야 한다.

• 포유자돈은 분만 5일부터 입질사료와 물을 함께 급여할 수 있게 하여 이유체중을 최대한 늘려주고 이유 후 사료적응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한다.

• 모돈은 이유 후 재취 발정이 7일 이내에 올 수 있게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외음부에 농이 있거나 유방염이 있으면 항생제와 PGF2 α 를 함께 투여한다.

• 요즘은 조기 이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부분보다 모돈의 체형과 자돈의 발육정도를 고려하여 이유시기를 조절하는데 특히

겨울철 사양관리에서 분만사는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하며 일교차와 섯바람 유입에 따른 포유자돈 설사 문제는 점검을 해야 한다.

자돈은 이유 후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 수준이 서서히 감소하여 면역의 취약기 시기 현상이 있으므로 각종 질병에 쉽게 감염되므로 병원성 미생물 감소를 위해 매일 규칙적인 소독과 온도, 습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어야 한다.

특히 온도는 분만사보다 더욱 높게 관리하여 위축돈 발생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육성·비육돈은 환기량이 중요하므로 윈치커텐의 조절을 신경써야 하고, 이 때 저온 저습은 돼지에게 있어 최대 문제점을 일으켜 호흡기 발생을 야기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PMWS질병이 발생한 농장은 이유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발생률을 저하요인이기도 하다.

2. 자돈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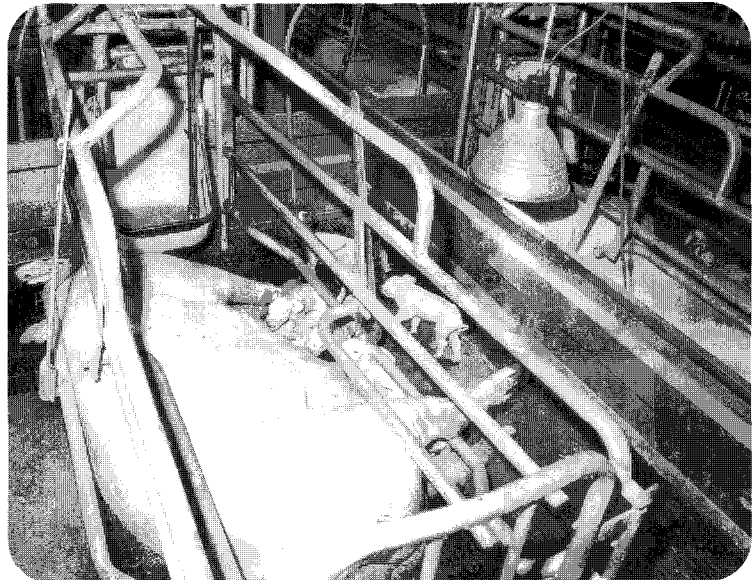
자돈은 이유 후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 수준이 서서히 감소하여 면역의 취약기 시기 현상이 있으므로 각종 질병에 쉽게 감염되므로 병원성 미생물 감소를 위해 매일 규칙적인 소독과 온도, 습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어야 한다.

특히 온도는 분만사보다 더욱 높게 관리하여 위축돈 발생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이유후 7일까지는 온도를 27℃ 이상 유지시키기 위해 별도의 보온등을 설치해 주고 이유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를 못하는 개체는 연사 급여와 항생제를 미리 첨가

하여 준다.

- 사료섭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음수 장치와 사료통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체중분리를 하여 수용해야 하며, 이 때 일령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이것은 질병이 수직전파와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돈군간의 격차를 최소로



- 겨울철 사양관리에서 분만사는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하며 일교차와 섯바람 유입에 따른 포유자돈 설사 문제는 점검을 해야 한다.



- 자돈사에서 백신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때 주의할 사항은 접종이 필요하지만 환돈은 격리하여 나중에 접종토록 하고, 어린 일령을 먼저 주사하고, 건강한 개체를 먼저 실시한다.

해야 돼지 이동시 편리하기 때문이다.

- 설사 발생돈이나 기침을 하는 개체는 조기에 선별하여 치료를 해야 한다. 어린 개체가기 때문에 치료시기가 하루만 늦어도 위축돈이 되거나 폐사되기 쉽다.
- 자돈사에서 백신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 때 주의할 사항은 접종이 필요하지만 환돈은 격리하여 나중에 접종토록 하고, 어린 일령을 먼저 주사하고, 건강한 개체를 먼저 실시한다. 돈방간 중간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돈방을 이동하여 접종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토록 한다. 환돈은 접종을 실시해도 항체를 형성하지 못할 뿐아니라 다른 개체에게도 질병을 전염시키는 전염원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자돈사에서 비육사나 육성사로 이동시 환경이 급격히 변하므로 이동 3~4일 전부터 온도적응을 위하여 온도를 서서히 낮추어 주기 시작한다. 자돈사의 높은 온도와 육성·비육사의 온도차가 호흡기 유발에 큰 요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 환돈발생시 주사 치료보다는 경구투여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주사시 스트레스 발생과 개체간의 전염의 원인이 되므로 질병 발생의 악화요인이 크며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육성비육사 관리

육성비육사의 큰 문제점은 환기 관리에 따른 Gas발생 억제와 습도 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환기량을 높이기 위해 윈치를 내린다거나 환풍기를 과도하게 작동시키면 Gas

는 없어지겠지만 온도의 저하와 건조로 인하여 기침발생이 많아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사료섭취량 저하와 위축돈 발생이 많아져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만다.

- 사료가 급이기 내로 너무 많이 내려오거나 혹은 적은양만 내려오는지를 매일 점검하여 돼지가 항상 신선한 사료를 충분히 급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별도의 환돈방을 설치하여 돈방내 위축돈이나 질병이 발생한 개체는 즉시 격리치료하여 미리 전염원을 차단하여 손실을 최소화한다.
- 육성·비육돈은 환기량이 중요하므로 윈치 커텐의 조절을 신경써야 하고, 이 때 저온 저습은 돼지에게 있어 최대 문제점을 일으켜 호흡기 발생을 야기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4. 번식사 관리

겨울철 모돈은 체소실이 다른 계절에 비해 크므로 너무 마르지 않도록 사료량 조절에 신

겨울철 모든은 채소실이 다른 계절에 비해 크므로 너무 마르지 않도록 사료량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하고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유행하는 싯점이므로 차단방역은 물론 백신접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유모돈은 일조량이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재귀발정이 지연되고 무발정과 저수태가 뚜렷이 나타나므로 영양관리와 백열등을 점등시켜 일조량을 늘려줘야 한다.

경을 써야 하고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유행하는 싯점이므로 차단방역은 물론 백신접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유모돈은 일조량이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재귀발정이 지연되고 무발정과 저수태가 뚜렷이 나타나므로 영양관리와 백열등을 점등시켜 일조량을 늘려줘야 한다.

후보돈 입식은 계획대로 해야 하고 겨울철이므로 지체 손상이나 영양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분만모돈의 후산 등을 접촉시켜 농장내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높여주고 백신을 철저히 하여 후보돈 순치 과정을 실시해야 한다. 웅돈사는 온도가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방한 시설을 갖추고 주 3~4회 정도로 사용하여 혹사시키지 말아야 한다.

- 모돈은 이유시 비타민제와 광물질 제제를 주사하고 1일 절식시킨 연후 2일째부터 사료량을 증량시켜 발정이 강하게 오게 하여 수태가 잘 되게 해야 하며 수정을 시킨 후 임신돈사료로 교체하여 안정시킨다.
- 임신단계별 사료량을 준수하여 급여하되 마른 개체는 증량시켜 분만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해야 한다.
- 임신말기에는 소화기성 백신과 호흡기성 백신은 프로그램에 의해 누락없이 접종하며 식불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분만이 가까워지면 외음부와 유방이 부종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분만후 산욕기 질환과 포유자돈의 설사 발생을 일으키므로 사료량의 감량과 심한 경우 항생제와 소염제를 주사해 준다.

맺으면서

겨울이 되면 PED, TGE 등에 의한 포유자돈설사로 인해 폐사가 증가하고 이유자돈과 비육돈의 성장정체와 사료효율 감소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로 인해 돈가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출할 돼지가 없어 농장의 어려움은 더욱크다.

요즈음은 PMWS, PRDC 등의 만성 소모성 질병이 농장마다 상재해 있고 이로 인해 폐사두수가 증가하고 약품비 증가가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 여러 가지 방책을 가지고 이런저런 약품과 백신을 사용해 보지만 기대 이하의 효과만 있을 뿐 사고두수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생적인 관리와 기본관리에 충실하면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돼지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세심한 관찰에 의해 피해두수도 줄어들 것이다. **양돈**